

영국의 디지털을 통한 시민참여

■ 윤 유 진*

1. 개요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꾸준한 발달과 함께 영국 정부는 다수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온라인 서비스를 증가시키기 위한 공공서비스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새로운 접근 채널이 공급되고 있으며, 이는 시민참여의 활동범위를 확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09년 3월 20일 Ofcom에서는 “Citizens’ Digital Participation”이라는 주제로 리서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시민참여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어떤 요인에 의해 시민참여가 활발해 지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사용자와 비사용자들 간의 시민참여수준을 비교함으로써, 디지털 참여에서 인터넷의 역할에 주목한다.

본 고에서는 Ofcom에서 정의하는 시민참여의 정의와 범위, 정보통신사회의 통신기술발전이 시민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시민참여의 장벽이 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영국 시민들의 시민참여활동에 관한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정경쟁정책연구실 연구원, (02)570-4093, youjin@kisdi.re.kr

2. 시민참여의 정의와 범위

(1) 시민 참여의 정의

Ofcom에서는 시민참여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 시민참여란 민주주의 제도와 상호작용을 하는 활동(선거활동 등록, 투표, 정치적 모임에 대한 참여와 기부, 당선된 대표 또는 정부 기관이나 지역기관들과의 접촉 등을 포함)이다. 둘째, 보다 일반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청원서에 사인을 하거나 비영리 기관에 기부하는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와 관련된 활동으로 자원봉사나 자치단체 활동을 시민참여로 정의하고 있다.

(2) 시민참여의 범위와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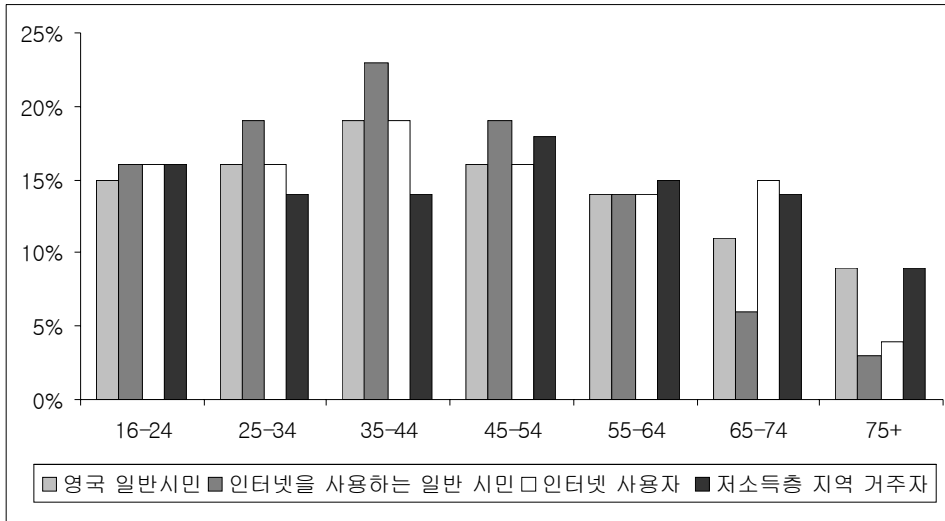
시민참여는 크게 정치적 활동, 지역사회 활동, 지역사회 캠페인 활동, 비사회적 지역 활동으로 구분된다. 정치적 활동에서는 선거등록과 투표, 정당가입, 정치적 모임에 대한 기부, 정부 조사나 설문지의 참여, 정부기관이나 지방의회와 연락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지역사회활동은 항의와 시위대의 참여, 캠페인 기관 가입, 캠페인 기관에 대한 기부, 서명운동,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거부, 자선단체 참여, 학교에서의 무보수 근로, 지역사회에서의 무보수근로, 지역사회나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점을 표출하거나 조언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보고서에서 시민참여 활동자는 '이전에' 시민참여경험이 있거나 '전년도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Ofcom은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분석을 위해 일반적인 영국시민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각각 그룹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시민들이 시민참여에 대해 어떠한 관점으로 표현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 소수의 '거리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그림 1]에서는 시민참여활동의 연령별 분포가 일반적인 영국시민, 인터넷 사용자, 저소득층 지역 거주자에서 비슷하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제·사회적 활

등을 활발히 하는 20대~40대의 시민참여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인구그룹 및 연령별 시민참여율



자료: Citizens' Digital Participation Research report(Ofcom), annex, Tabl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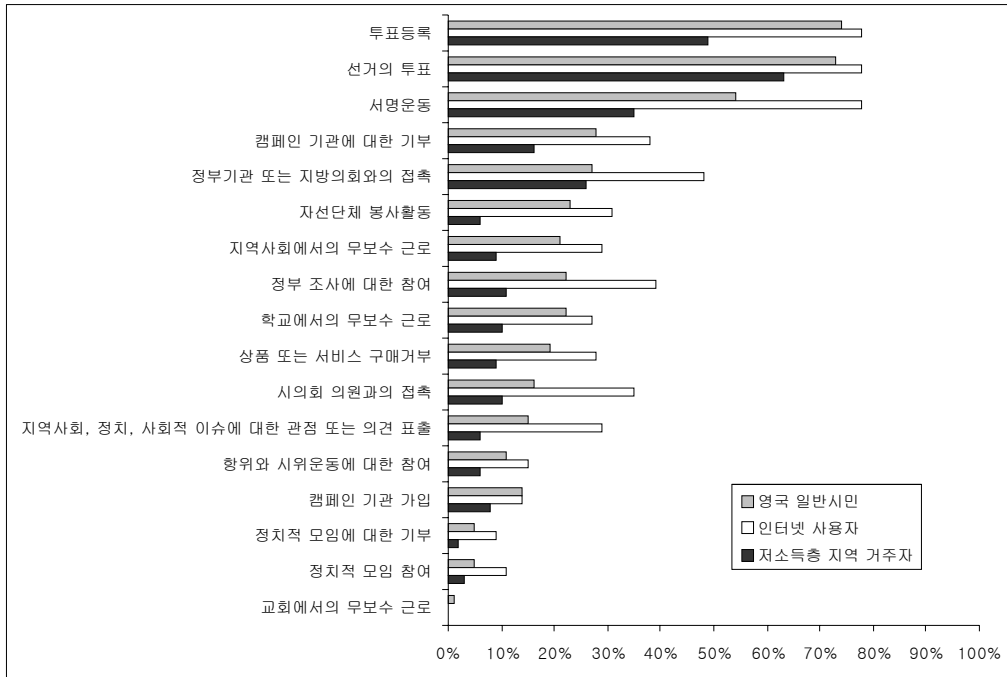
3. 주요 분석결과

분석결과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시민참여에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민참여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 중 90%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도에 시민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이 7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몇몇 사람들은 시민참여활동의 여러 부분에 복합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를 통해 시민참여는 투표등록, 선거의 투표, 서명운동 부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정치적 모임의 직접적인 참여와 기부활동 부분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지역사회활동은 대부분의 정치적 활동보다 활발하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인터넷 사용자 그룹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모든 활동에 있어 시민참여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층 지역 거주자의 경우 시민참여

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림 2] 인구그룹별 시민참여 활동 부분



자료: Citizens' Digital Participation Research report(Ofcom), 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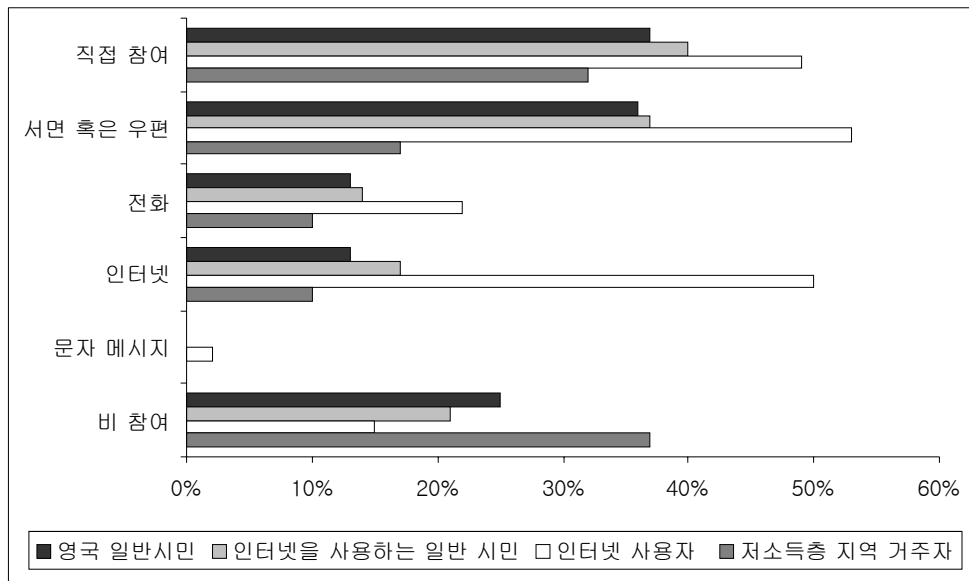
인터넷 사용자와 비사용자를 비교했을 때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민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사용자들은 온라인 시민참여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시민참여에서도 보다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터넷은 시민참여의 가장 큰 장벽이 된다고 응답한 '시간부족' 문제를 완화시키고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시민참여를 보다 쉽게 만든다. 즉, 인터넷은 시민참여를 위한 전통적인 매체를 대체함과 동시에 보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저소득층 지역 거주자들은 전체 인구와 비교했을 때 시민 참여활동에 있어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시민참여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흥미부족이 주된 장벽

이다. 그러나 인터넷 장치나 지식에 대한 부족, 정부에 대한 신뢰나 자신감의 부족 또한 시민참여의 장벽이 될 수 있다. 이는 정보격차와 정보참여의 효율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시사한다.

[그림 3] 시민참여의 다양한 채널



자료: Citizens' Digital Participation Research report(Ofcom), Figure 14

4. 결 어

민주사회에서 시민참여는 국가의 정책방향과 사회적 분위기 및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필수제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시민참여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은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끊임없이 연구될 분야이다.

Ofcom의 연구결과를 보면 인터넷 사용자의 경우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상대적으로 시민참여활동을 활발히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를 접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시민참여는 시간절감과 공간의 제약을 허물어 보다 활발한 활동을 유도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시민참여가 가능해졌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가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디지털시대의 여러 가지 정보 통신수단의 발달과 보급은 보다 활발한 시민참여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이원태 외(2008), 『방통융합시대 시민참여 변화와 정책적 함의』, 한국사회의 방송·통신 패러다임 변화 연구 08-0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Ofcom(2009), “Citizens’ Digital Participation”, Research Report.

Robin S. Smith and Massimo Craglia(2003), “Digital Participation and Access to Geographic Information: A Case Study of Local Government in the United Kingdom”, Journal of the Urban and Regional Information Systems Association, Vol.15, pp.49~54.